*영어어문교육, 15*권 **1**호 **2009**년 봄

로버트 프로스트 시의 자연의 역할*

양현철
(나사렛대학교)

Yang, Hyunchul. (2009). The role of nature in Robert Frost's poetr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1), 187-2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nature in Frost's poetry. Frost recognizes the mutual relations between man and nature that exist in a different dimension in human life. Nature is a kind of setting in human life. He tries to seek the true meaning of human life by living with this nature. He gives both sides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nature. His poetry is concerned with the drama of man in nature. He gives natural objects special meaning and uses them to explain aspects of human life. His attitude toward nature has dualistic vision. In some of his poems nature reflects mystic beauty, peace or benevolence. While his dark side of nature shows bestial and savage intent luring man to his destruction, whispering its cruel invitations to disaster. Faced with such malevolence, the poet feels a deep sense of inadequacy and uncertainty of life. In these pessimistic poems he tells of the absolute aloofness of limited man in the universe. However, we can comprehend the reality of human being against this kind of nature.

[man/nature/dualism/goodness/evil, 인간/자연/이원론/선/악]

I. 서론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시는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계절의 변화와 뉴 잉글랜드(New England) 지방의 불순한 기후에 적응해 사는 인간생활의 실존적 모습을 서술하고 증명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뉴 잉글랜드 지방의 변덕스럽고 거친 자연환경과 싸우면서 척박한 땅에서 농토와 임야를 개간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 실존의 실현이면서 동시에 뉴 잉글랜드 지방 사람들의 특

* 이 논문은 2009 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유하고 보편적인 인간 삶의 한 패턴이다. 프로스트의 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징적인 자연 그 자체와 계절적인 변화 양상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농촌 사람들의 실존적 삶의 단면들을 시적인 언어들을 통해 이해하고 감상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연을 소재로 다룰 때 프로스트의 주된 관심은 항상 자연이 보여주는 외적 세계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마음속이나 보편적인 인간의 내면세계에 얽힌 갖가지 사건들을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명상하는 것이다.

프로스트는 결코 자연에 몰입하거나 도취하거나 자연을 예찬하는 예찬론자가 아니고, 자연현상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관찰하는 자연 과학자도 아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을 각각의 개체로 생각하여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 속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실존적인 삶의 문제들을 서로 병치시킨다. 그래서 자연을 객관적이고 냉철한 인간의 삶의 관계에서 관조하고 명상하며 대화체의 형식을 빌어서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의 삶의 현장인 일상생활을 관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은 항상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활기차고 기름지게 하여 생활에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 때로는 그 반대인 악과 부정적인 면도 공존하여 자연은 인간에게 매우 위협적이며 무자비하고 무관심한 양상을 보여주고 인간에게 좌절과 시련과 파멸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가져다 준다. 프로스트의 시에서는 자연의 이와 같은 양면성이 항상 부각되고 있으나 자연 그 자체보다는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의 삶에 있으며 그의 시의 중심사상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다. 마리온 몽고메리(Marion Montgomery)는 프로스트의 자연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로버트 프로스트가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연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으며 프로스트에게 있어서 자연의 의미는 단순한 풍경 묘사나 전원적인 풍경을 서정적인 차원에서 감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자연 내지 인간과 인간의 영합이나 순응을 통해서 또는 대립이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간의 삶에 관한 진지한 태도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매체로서의 자연이다. 즉 프로스트의 관심은 인생의 해명을 위한 거울로서 또는 혼란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편이나 버팀목으로서의 자연이다. 프로스트의 자연은 매우 냉엄하고 삭막한 모습으로서 항상 소원함과 외로움과 망설임을 느끼며 그가 뿌리박고 있는 자연과의 일체감이나 자연과의 조화보다는 오히려 인간과 자연의 소외되고 동떨어진 유리된 감정이 그의 작품에 주조를 이루고 있다. (pp. 138-9)

프로스트는 자연의 양면성을 자신의 시를 통해서 잘 나타내었다. 존 리넨(John F. Lynen)은 프로스트 시에서의 이러한 양면성은 그의 현대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프로스트의 양면성은 그의 사고의 가장 지배적인 특성이며 그것의 기원은 자연에 대한 그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p. 177)고 하였다. 프로스트의 시에서의 이러한 자연은 이원론적인 바탕 위에 서 있는데, 하나는 자연의 호의적인 모습이 인간에게 다소 만족감과 위안을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 잔인하고 냉혹하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의 시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자연의 모습 중에서 어두운 면을 다룬 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래서 프로스트의 시를 읽은 많은 독자들은 그의 시가 암울하고 비극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립적인 두 세계의 양면성은 19 세기 구질서의 붕괴와 20 세기 신질서의 형성간의 갈등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런 시대적 흐름이 프로스트의 작품에 반영되어 자연의 인간에 대한 양면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 마크 리차드슨(Mark Richardson)은 “프로스트의 비전은 분명하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p. 166). 그러나 로오렌스 톰슨(Lawrance Thompson)은 프로스트의 시에 자리 잡고 있는 회의주의는 오히려 장점이 된다고 평하였다. 톰슨은 “프로스트가 믿음과 불신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은 채 회의주의라는 중용의 위치를 통해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보았다(p. 120). 필립 거버(Philip L. Gerber)는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나는 자연은 호의적인 요소와 악의적인 요소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친구와 적과 같은 존재”라고 하였다(pp. 157-58). 이런 양면성은 그의 시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며, 그의 시가 회의적인 요소들과 믿음이라는 요소들을 모두 포용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필립 거버는 “프로스트를 사고하는 바에서는 이원론자이지만 소망하는 바에서는 일원론자”라고 명칭하였다(p. 2).

프로스트는 사물과 인생에 깃들인 회의적인 요소들과 믿음의 요소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 본성에서도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양면성이 늘 공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프로스트는 한 손에는 믿음을 다른 한 손에는 불신을 잡고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회의주의라는 중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회의주의가 믿음에 대한 가속과 불신의 감속을 통제하는 균형의 바퀴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스트 시에 있어서의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에 대한 자연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하고, 그의 작품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를 그의 시를 예로 들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II. 본론

프로스트가 표현하고 있는 뉴 잉글랜드 지방의 자연은 단순한 관조나 예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지방의 사람들이 뿌리를 박아 농사를 짓고 노동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삶의 실제적인 무대가 되는 곳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공포가 공존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자연이다. 더욱이 그 지방은 프로스트의 일상생활과 실제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곳이다. 예컨대, 매년 봄에 주민들이 담장을 고치는 일, 눈 내리는 저녁의 숲이나 숲에서 지저귀는 새의 노래 소리를 듣는 일, 무성한 풀잎을 보는 일 등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인간의 삶의 필연인 삶과 죽음의 문제로 대비되어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을 그는 자신의 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인 자연은 언제나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상대로서 여기에서의 자연의 모습은 인간에게 온화하고 평화스러우며 너그러운 상태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의 시에서의 자연은 잔인하고 냉혹하고 무관심한 면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잔인하고 냉혹한 모습의 자연으로 인하여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된다.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특히, 숲, 나무, 비, 바람, 낙엽 등이 주종을 이룬다. 이와 같은 자연은 모두 인간의 어두움과 연계되어 인간을 위협하게 한다. 특히, 어두운 숲의 이미지는 빈번히 등장하며 주로 내면세계의 도피적 충동이나 두려움, 고독 등을 표출한다.

프로스트는 자연과 어둠의 이미지와 더불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거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인간과 자연 간의 분리된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한다. 자연의 어둠과 거리감을 잘 표현하는 소재로 숲이라는 공간이 자주 활용된다. 내리는 저녁 숲 가에 ("Stopping by Woods on Snowy Evening")(1923)는 프로스트 시에서 자연의 어둠이란 이미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으며 자연으로부터의 느끼는 거리감 또한 잘 보여주는 예로 자주 언급된다. 이 시에서 프로스트는 뉴 잉글랜드 지방의 일 년 중 가장 어두운 밤에 흰 눈이 흩날리는 정적 속에 말을 타고 숲을 지나가다가 멈춰 선다. 화자는 순한 바람소리와 조랑말의 마구에 달린 종소리만 들리는 한적한 숲 가에 말을 세우고 서서 자연에 대한 관조적인 태도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같이 명상한다. 그러나 화자는 죽음을 상징하는 숲의 유혹을 뿌리치고 앞으로 더 살아야 할 삶의 도덕적 약속을 확인하는 다짐을 자연과 대비시켜 매우 서정적인 태도로 표현하고 있다.

이 숲의 주인을 나는 알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집은 마을에 있어
자기 숲에 쌓이는 눈을

나 여기 서 바라봄을 그는 모르리.

나의 작은 말도 이상하게 생각하리
근처에 농가도 없는 곳에 멈추는 나를,
한 해의 가장 어두운 저녁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Whose woods those are I think I know.
His house is in the village though;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

My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To stop without a farmhouse near
Between the woods and frozen lake
The darkest evening of the year. [1]

일 년 중 가장 어두운 겨울 밤이라는 배경 설정은 고독하고 외로운 정감을 고양시키는 가운데 온통 눈 덮인 적막한 겨울 숲과 그 밖에 홀로 서 있는 화자 서로간의 거리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집 안에 있는 숲의 실제 주인이나 화자가 끌고 있는 작은 말의 무심해 보이는 관점은 신비로운 숲에 매료되어 가는 화자의 목소리와 거리를 두는 설정이다.

프로스트 시에서 자연은 인간과의 대립적인 관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때도 있다. 자연에 대해 이러한 양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는 인간과 자연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승화시키는데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로스트는 자연에 대하여 언제나 인간의 삶을 통하여 유동적인 입장에서 자연을 관망하고 있다. 그는 이 시에서 아름다움에 취해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요컨대, 자연으로의 몰입은 자신의 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은 현실의 삶에서 자연과 함께 머물 수 없는 인간은 의무와 책임이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앞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프로스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젖어 있지 않고 현실의 삶을 위해 자연으로부터의 일시적 후퇴를 하게 된다.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

[1] Robert Frost, *The Norton Anthology of Modern Poetry*, ed., Richard Ellmann and Robert O'clair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70), p. 204. 본 논문에서 인용한 시의 원문은 모두 위의 시집에서 인용하였고, 앞으로는 책의 페이지만 기재함

인간을 유혹하지만 자연에 몰입하지 않고 잠들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숲은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었지.
>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네.
>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몇 마일이,
>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몇 마일이,
>
>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 But I have promises to keep,
>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p. 196)

여기에서 시인은 여행의 모티브를 통해 자연과 인생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눈이 오는 숲(자연)은 매우 아름답고 고요하여 거기 머무르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것은 아름다움의 유혹이자 휴식에의 유혹, 또는 '죽음에의 유혹' 이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냥 떠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성하고 떠날 여유는 없다. '지켜야 할 약속' '가야 할 여러 마일'을 반복해 언급함으로써 인생의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시 속에 묘사된 그 아름답고도 매혹적인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거나 융합하지 못하고 서로간의 거리감만을 재확인 하면서 위기와 긴장 속에 머물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단절을 보여주기도 한다.

더 나아가 눈 덮인 숲은 아름다운 자태로 인간을 들어오라고 유혹하고 있다. '그 해의 캄캄한 저녁'으로 표현된 어둠은 죽음을 유혹한다. 하얀색과 검은색의 아름다운 대비에 의해 화자는 아름다움에 대한 유혹과 동시에 휴식에의 유혹, 죽음에의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아름다움에 대한 유혹이 강하지만, 화자는 숲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숲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숲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영원한 잠이며, 휴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한다. 화자는 마지막 두 행에서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죽음의 유혹을 물리치려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숲으로 들어가는 것, 즉 죽음을 거부한다. 숲은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은 매력을 자아내지만 화자는 곧 잠들기 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현실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한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도 화자가 쉽게 숲에 들어가지 않고 떠나야 하는 다짐을 반복하는 구절의 의미는 모호하게 남지만, 자연과의 거리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프로스트에게 검은 숲(dark woods)은 자아를 발견하고 인간 사회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을 초월하여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신성한 장소인 동시에 선뜻

들어서고 싶지 않은 미지의 장소이기도 하다. 어두운 숲을 주제로 한 시 중에서 특히 프로스트가 기억해 둘만한 나의 가장 훌륭한 걸작이라고 언급한 이 시에 대해서 알반 라이안(Alvan S. Ryan)은 프로스트가 눈 덮인 숲 속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유혹에 빠지지만, 곧 '의무와 약속이 있는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고 언급하였다(p. 133). 요컨대, 시인은 눈 쌓인 숲 속의 매혹적이면서도 어두운 미가 있지만 그러나 지켜야 할 약속이 있기에 이런 아름다움을 전적으로 깨닫게 되는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프로스트의 시 속에는 이러한 숲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멜컴 카울리(Malcolm Cowly)는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어두운 숲에 대하여 "프로스트의 시에서 숲은 흥미 있는 역할을 한다. 숲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미지의 나라이며, 가능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공포로 가득 차 있다."(p. 43)라고 언급하였다. 존 대비드 스위니(John David Sweeney)는 이 시에 나타난 프로스트의 자연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프로스트에게 있어서 자연은 모든 가치의 근원이었다. 그가 쓴 거의 모든 시는 자연의 실체가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 즉, 자연의 아름다움과 두려움, 그리고 인간에게 갖는 의미 등이다. 그는 자연의 다양한 분위기를 보고 있다. "눈 내리는 저녁 숲 가에 서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포함하고 있다. (p. 73)

프로스트의 시가 자연을 소재로 하는 것만큼 시에 나타난 계절의 순환의 믿음 속에 인간 실존의 모습과 의의가 함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겨울의 풍경은 많은 문학작품에서 자아의 위축과 고립, 삶의 무게의 짓눌림으로 인한 회의와 두려움의 상징으로 등장하여 왔다. 그의 시도 겨울과 관계된 시가 수적으로 제일 많고, 중심적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시의 실제 배경이 되는 뉴 잉글랜드의 겨울이 유난히 길고 추운 것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겨울과 관계된 눈, 추위, 폭풍우 등의 외부적 요소들은 어떤 압력처럼 작용하여 그에게 공포감이나 고독, 소외, 허무의 상황으로 연결된다. 루이스 밀러(Lewis H. Miller)는 프로스트 시에서 눈이 주는 불안과 공포를 인정하며 "프로스트의 겨울은 그의 불안한 내부 날씨와 관련된다."(p. 357)고 말했다.

프로스트는 젊은 시절에는 이상과 감각적인 것을 추구했으나 말년에는 삶에 대한 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삶 자체를 수용하는 자세와 주제를 주로 다루었다. 그 중 대표적인 시가 자작나무 ("Birches")이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처음 20 행은 겨울 철 폭풍으로 휘어진 자작나무에 대한 관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의 20 행에서는 휘어진 자작나무들은 폭풍의 소치로 보는 대신 어떤 소년이 매달려 놀던 것으로 상정해 보았다. 마지막 19 행에는 작중화자의 소년기와 같은 기억이 언급되고 그 경험의 삶에 대한 태도와 의의가 묘사되고 있다.

그는 아버지의 나무들을 하나하나 진압해 나갔다.
되풀이 올라탐으로써
뻣뻣한 기운을 없앨 때까지
그리하여 모두가 축 처지고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을 때까지. 그는 배울 것을
다 배웠다. 너무 일찍 나섬으로써
나무를 땅까지 끌어 다니지 않는 법을.
그는 늘 꼭대기 가지까지
균형을 유지했다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잔을 찰찰
넘치도록 채울 때 같은 정성으로.
그리고는 휙 하며 다리를 차 몸을 던진다
공중을 통과하여 땅으로 돌아온다.
나 역시 한때 자작나무를 탔었다.

One by one he subdued his father's trees
By riding them down over and over again
Until he took the stiffness out of them,
And not one but hung limp, not one was left
For him to conquer. He learned all there was
To learn about not launching out too soon
And so not carrying the tree away
Clear to the ground. He always kept his poise
To the top branches, climbing carefully
With the same pains you use to fill a cup
Up to the brim, and even above the brim.
Then he flung outward, feet first, with a swish,
Kicking his way down through the air to the ground.
So was I once myself a swinger of birches. (p. 198)

자작나무 에서 자작나무를 타는 일은 나무를 오르는 동작과 땅으로 내려오는 동작으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로서 각각 이상과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도 한때는 자작나무를 타는 소년이었다.'라는 표현은 시인이 어렸을 때 이상에 대한 꿈을 지녔음을 이야기 한 것이다. 어른이 된 뒤에도 걱정이 많아지고 인생이 길 없는 숲 속을 헤매는 것처럼 혹은 튕겨져 나온 나뭇가지에 한쪽 눈을 얻어맞아 눈물이 나올 때와 유사할 때면, 더욱 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는 이 현실세계에서 탈출하여 잠시 이 지상을 벗어나고 싶어진다. 그렇지만 나무를 타는 것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옴을 전제로 한다. 그는 시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 현실과 이상의 대조적인 두 세계의 조화로운 추구에 자신의 소망을 표현한다. “이 세상은 사랑의 터전(Earth's the right place for love)"이라는 말은 지상의 삶에 대한 애착을 뜻하고 있다. 시인은 자작나무를 타듯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올라감도 재미있고 내려옴 또한 유쾌한 일, 자작나무 타는 아이처럼 인생을 멋있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 것이 프로스트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자작나무 는 이처럼 관찰, 상상, 명상의 자연스런 조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상을 향한 갈망과 현실로의 귀환은 프로스트가 중시하는 삶의 태도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지상이야말로 사랑하기에 알맞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상적인 요소에 대한 애착이 바로 지상에서의 고통에 대한 긍정내지 애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로시 헐(Dorothy Hall)의 말처럼 자작나무 는 ‘하늘을 향해 오르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는 즐거운 유희’(a playful excursion toward heaven and back)(p. 110)로서 이상과 현실을 추구하는데 서로 조화를 이루는 시이며, 하늘을 향해 떠나는 행위가 지상의 삶을 긍정하기 위한 일시적 후퇴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 3 시집 마운틴 인터벌(Mountain Interval)의 첫머리에 수록된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은 구체적인 상황과 세밀한 심리묘사를 보여준다. 이 시가 말하는 점은 인생은 여러 가능성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현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목이 시사하듯이 배제의 애석함을 표현하고 있다.

노란 수풀에 두 길이 갈라져
둘 다 가 보는
한 나그네가 될 수 없어 오래 서서
한 길이 덤불로 굽어 드는 데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딴 길로 들어섰다.
매한가지로 아름답고 풀이 우거지고
밟히지 않아 낫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그리로 지나감으로써
같은 정도로 밟힌 셈인데

그날 아침 그 두 길은 모두
아무도 더럽히지 않은 낙엽에 덮여 있었다.
처음 길은 딴 날로 미루지!

허나 길은 길로 뻗어가는 것이기에
돌아올 가망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먼 훗날
어디에서 한숨 쉬며 말하게 되리라.
수풀에 두 길이 갈라져 나는 결국
덜 다니는 길을 택하였노라고.
그 결과 큰 차이가 생겨난 것이라고.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Then took the other, as just as fair,
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
Had worn them really about the same,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
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Yet knowing how way leads no to way,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p. 196)

첫째 연은 화자가 두 길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될 수 없음을 섭섭히 여기는 미묘한 심리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둘째 연에서는 이미 선택해버린 상황이지만 이것이 충동적 행동이 아닌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도덕적 선택인 것이다. 인생은 일회적이며 선택은 가능성의 탐색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연에서는 배제의 애석을 스스로 위로 하려 들지만, '길이 딴 길로 계속됨을 알고 있기에'가 암시하듯이 작중화자는 선택의 일회성을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연은 미래의 시점에서 배제의 애석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선택의 결과를 큰 차이로 파악하고 있다. 길과 여행은 전통적인 인생의 상징이니까 이 시의 두 길은 거의 비슷한 매력을 지닌 직종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능성을 실현 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인생의 조건이다. 시인의 임무가 소재에 대한 이해와 그 정서의 합리적 전달에 있다고 볼 때, 이 시는 그것에 부합되는 훌륭한 작품이다. 숲 사이의 두 길 이라는 우화적 상황을 통해 인생의 선택과 배제의 문제를 흥미롭게 다룸으로써 보편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까닭이다.

프로스트 시의 특징은 인생의 여러 단면의 실제 모습의 생생한 제시와 사물의 양면을 동시에 인식하려는 이원적 태도이다. 그의 시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인생의 비극적인 면과 낙관적인 면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다. 그의 시에서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희망과 용기와 재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우호적인 면과 인간에게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면으로 양분되어 나타난다. 그의 시에서 이러한 자연의 양면성은 그 주된 주제이긴 하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은 자연을 배경으로 인생을 해명하는 것이 바로 그의 시의 위대성이다. 그의 시에 나타난 숲 등은 복잡한 인간 사회로부터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머무르고 싶은 인생에 대한 사색을 의미한다. 그는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자연 속에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자연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방어할 울타리를 만들고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인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스트는 그의 시의 배경이 된 뉴 잉글랜드의 자연과 거기에 등장하는 소박한 인물들을 통하여 인생의 보편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한 관찰의 기쁨을 경험하고 인생을 해명했다. 즉, 그는 인생의 의의를 자연을 통해서 인간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보았다. 그의 시는 현실을 이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그의 시에서 자연의 양면성은 어둡고 해악을 끼친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지친 인간에게 도피처를 제공하여 원기를 회복시켜 주어 삶에 대한 재인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 가운데에서 인간의 노동을 다룬 시가 바로 담장 (“Mending Wall”)이다. 담장을 고치는 일은 두 이웃이 함께 하는 공동의 작업이면서도 각자가 맡은 부분만 책임지면 되는 구획화되고 개인화된 노동이다. 담을 쌓는 일 자체도 서로의 공간을 분리시키는 일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의 사실이다. 울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담장고치는 작업을 각자의 구역에서 하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이웃은 구석기 시대의 야만인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는 시인의 모습은 공동의 작업을 하지만 자기의 영역 안에서만 일할 뿐이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나아가는 것이다.

각자에게 떨어진 돌멩이는 각자가 맡는다.

나는 거기서 그를 보게 된다.
양손에 돌 머리를 꽉 움켜쥔 채
구석기 시대 무장한 사람 같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어둠은 숲과 나무 그림자의 어둠만은 아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때마침 잘 생각했다고 그는 또 한 번
주장한다 튼튼해야 이웃 사이가 좋지요.

We keep the wall between us as we go.
To each the boulders that have fallen to each.

I see him there,
Bringing a stone grasped firmly by the top
In each hand, like an old-stone savage armed.
He moves in darkness as it seems to me,
Not of woods only and the shade of trees.
He will not go behind his father's saying,
And he likes having thought of it so well
he says again,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pp. 193-4)

울타리가 좋아야 좋은 이웃이 된다는 구절이 반복되면서 두 이웃간에 자리한 벽의 존재는 보다 뚜렷해진다. 인습적으로 내려오던 벽의 존재를 통해 서로의 거리를 설정해 둠으로써 오히려 서로에게 안정감을 갖는 그들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진정한 화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담장, 즉 이웃 간의 벽의 기능적인 면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모호한 결론을 맺는다. 제임스 포터(James L. Potter)는 프로스트가 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을 무척 꺼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인간은 자연 세계에로부터 인간 세계로 놓여있는 다가가기 힘든 거리에 고뇌하면서도 벽을 통해 그 벽을 고수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p. 45). 담장의 필요성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프로스트 자신도 알고 있는데 언덕 너머 이웃에게 담장 수리를 제안한 이유는 이웃 사람을 생각하여 이웃 사람 자신이 일하는 마음의 암흑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담장은 공정함의 상징으로 간주되며, 두 이웃의 사고와 개성의 차이를 공정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몽고메리(Marion Montgomery)는 프로스트가 서로 간의 벽의 존재를 통해 자연에서 인간의 존재의 양상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과 세상을 분리시키는 벽을 놓음으로써

상호간에 잠시나마 휴전의 영역과 존중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pp. 138-9).

자연은 노동으로 인해 자신의 소외감을 목격하는 공간이 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자연과 관계를 초래하고 자신이 만든 벽으로 자연과도, 타자와도 분리되어가는 화자의 현실은 때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상상의 공간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그러나 늘 악의적이기도 하고 호의적이기도 한 자연 가운데에서 외로운 인간의 노동의 장면을 보게 된다.

노동의 진정한 자족감에 대한 긍정은 늦가을 사과를 딴 ("After Apple Picking")의 화자를 통해 회의감으로 바뀌어 간다. 화자는 수학을 마친 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극도로 지친 모습으로 등장한다. 제목과 달리 화자의 마음은 수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집착하고 있다.

> 내 긴 사닥다리의 두 끝은 나무를 거쳐
> 하늘을 향해 아직도 뻗어 있고
> 그 옆에는 아직도 채우지 않은
> 통 하나 놓여 있고 어느 가지에는
> 아직 따지 않은 사과 두세 개는 있을 것 같다.
>
> My long two-pointed ladder's sticking through a tree
> Toward heaven still,
> And there's barrel that I didn't fill
> Beside it, and there may be two or three
> Apples I didn't pick upon some bough.
> But I am done with apple-picking now. (p. 194)

사과를 따기 위해 오르던 사다리가 여전히 하늘로 향하고 있으니 실제 사과 따기는 끝냈지만 화자가 마음먹었던 사과 따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늘이 인간은 지상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천국,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화자는 안식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사과를 담은 통이 다 채워지지 않았고, 나무에는 아직 따지 않은 사과가 남아 있는 데도 화자는 사과 따기를 마치려 한다. 이어지는 행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자신이 수확에 만족하지 못함을 나타낸 것이다.

> 어떤 꿈을 꿀지
> 난 알 수 있었다.
> 커진 사과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 가지 끝과 꽃 끝과
> 적갈색의 흠이 또렷이 나타난다.

내 발등엔 아직 통증이 느껴지고

And I could tell
What form my dreaming was about to take.
Magnified apples appear and disappear,
Stem end and blossom end,
And every fleck of russet showing clear.
My instep arch not only keeps the ache, (p. 194)

잠을 들려 하는 농부는 자기가 꾸게 될 꿈의 사과 따기 장면 하나 하나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확하는 동안 이런 피로한 경험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남아있는 사다리의 압력이나 아픈 발등, 지하실 창고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사과 소음 등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과다한 농작으로 극도로 지친 농부의 처지를 말해주는 증거다. 자신이 바랐던 수확이지만 그로 인해 너무 지쳐버린 나머지 잠조차 들기 어려운 농부의 힘든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III. 결론

프로스트에게 있어서 자연은 양면성을 띠면서도 냉혹하고 무관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자연 속에서 인간은 소외와 고립을 느끼곤 한다. 자연과의 거리감과 관계의 시도에서 수반되는 단절감을 경험하고 자연과 분리된 곳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있던' 인간은 노동의 행위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 프로스트의 자연은 인간에게 더 이상 감상의 대상으로서 자연이 아니다. 자연은 늘 인간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뚜렷한 의미를 전해주지 않는다. 때로는 미적 대상이다 가도 때로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뉴 잉글랜드 지방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인 자연의 모습은 신비롭고 깊은 아름다움을 자아내기도 하다가 자주 어두운 면모를 띠고 주인공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한다. 자연의 어두운 속성을 잘 포착해내는 관점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결국 인간이 겪는 소외감과 고독, 두려움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

프로스트는 자연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단절과 고독의 위기의식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성찰함으로써 자연의 순리를 배우려 했고, 다른 한편 인간들 상호간에도 완전한 화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어서 단절과 고립이 생기고 그로부터 부조화와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인간 사이의 실상임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관찰하고 있다. 프로스트의 시에 보이는 인간사이의 장벽은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단절로부터 비롯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배경과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오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부족과 이기심에서 야기되기도 한다. 이런 벽들은 서로의 노력으로 승화, 극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더욱 심화되어, 결국에는 암흑 속에서 방황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인간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이러한 자연에 개입하면서 서로간의 유대를 열망한다. 인간의 노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자연과 관계를 시도하는 매개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연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상상의 세계 속에서나마 조화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추구한다. 참다운 노동의 의미를 탐색하고 노동을 통한 만족감과 자신의 고립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는 점점 노동을 통한 소외의 상황으로 이어져 간다. 개인으로 이루어지건 집단의 형태로 이루어지건 노동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소외와 만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인간에게 어떤 가치나 의미를 주지 않는다.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자연은 인간에게 분리를 경험하게 했고 노동의 장면을 통해 분리의 상황과 고독의 경험은 표면화 되어 간다. 기계화된 노동을 하면서 인간은 더욱 자신을 소외시키고 타인과의 유대를 갖지 못한다. 노동에서 만족감과 참다운 의미를 찾으려던 화자는 점점 노동의 참혹한 양상과 존재간의 근본적인 분리의 현상을 깨닫게 된다.

프로스트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공포와 냉혹함, 타인과의 사이에서 느끼는 단절의식과 그로 인한 고독,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의 갈등 등을 단순히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삶을 조명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와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는 근본적으로 철학적 시인이며 심오하고 섬세한 감성과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날카로운 지성을 겸비한 시인이다.

결국, 그의 시의 관심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그들의 삶의 조명에 있다. 그에게 시는 자연을 통하여 인생을 해명하려는 시도이며 자칫 인생의 시련 때문에 의미를 잃기 쉬운 삶을 끌어안는 작업이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절대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무기력과 공포감을 노래했으며, 또한 인간들 사이의 무관심과 결국 혼자라는 것을 자신의 시에서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프로스트의 시는 뉴 잉글랜드 지방의 자연을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역할과 이로 인한 인간의 실존적인 존재가치에 대한 깨달음의 추구라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참 고 문 헌

Cowley, M. (1962). The case against Mr. Frost. In J. M. Cox (Ed.),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pp. 30-68).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Frost, R. (1970). Robert Frost. In R. Ellmann & R. O'clair (Eds.), *The norton anthology of modern poetry* (pp. 190-204).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Hall, D. J. (1984). *Robert Frost: Contours of belief*. Ohio: Ohio UP.

Lynen, J. F. (1982). Robert Frost as a modern poet. In P. L. Gerber (Ed.),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pp. 160-201). G. K. Hall & Co.

Miller, H. L. (1960). Design and drama in a boy's will. In J. Tharpe (Ed.), *Centennial essays* (pp. 345-369). Jackson: Mississippi UP.

Montgomery, M. (1962). Robert Frost and his use of barriers: Man vs. nature toward God. In J. M. Cox (Ed.), *Robert Frost* (pp. 130-155).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Potter, J. L. (1980). *Robert Frost: Handbook*. Park and London: Pennsylvania State UP.

Richardson, M. (1997). *The ordeal of Robert Frost: The poet & his poetics*. University of Illinois P.

Ryann, A. S. (1982). Frost and Emerson: Voice and vision. In P. L. Gerber (Ed.),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pp. 120-145). Boston: G.K. Hall & Co.

Sweeney, J. D. (1965). *The poetry of Robert Frost*. New York: Monarch P.

Thompson, L. (1942). *Fire and ice: The art and thought of Robert Frost*. New York: Henry Holt.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양현철
나사렛대학교 영어학과
330-090 충남 천안시 쌍용동 456
Tel: (041) 570-7966
Email: hcyang@kornu.ac.kr

Received in January, 2009
Reviewed in February,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ch, 2009